

#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3년 10월 조사 -

2013년 11월 6일  
 주식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 경기DI는 46.8, 소규모 기업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

~ 전국 10개 지역 중 6곳이 과거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경기상승이 지방 경제에도 영향 ~

(조사대상 2만 2,766 개사, 유효회답 1만 769 개사, 회답률 47.3%, 조사개시 2002년 5월)

### < 2013년 10월 동향 : 상승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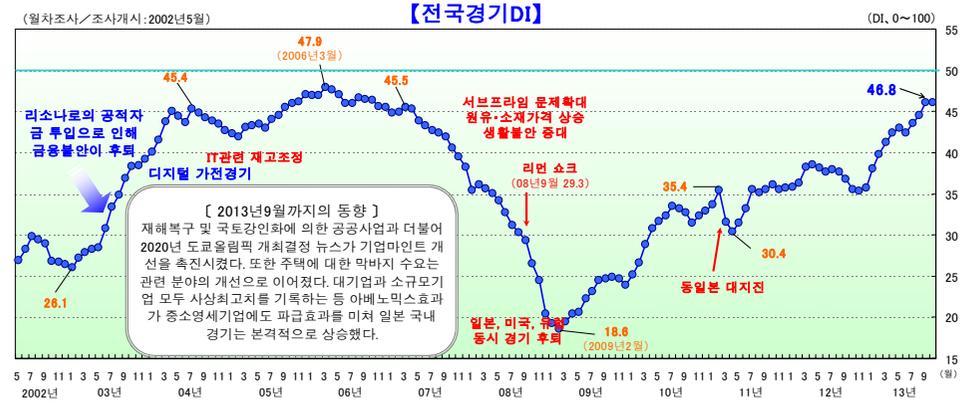
2013년 10월 경기동향지수(경기DI : 0~100, 50이 판단 분기점)는 전월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6.8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2006년 5월(47.0) 이후 7년 5개월만이며 지금까지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주택관련 수요확대가 이어져 건재·가구 및 건축 서비스를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관련 업종의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우려되었던 미국의 재정문제도 기한직전에 합의되며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제조』 『도매』 『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10개 지역이 개선되었고 『홋카이도』 『도호쿠』 지역권을 중심으로 6개 지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규모면에서도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업과 지방에서도 아베노믹스의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전국 6개 지역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일본 국내 경기는 지방 경제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 조사 효과의 포인트

- 『제조』는 주택과 사무가구 판매가 증가한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와 화력발전설비 및 자동차 생산 등 호조를 보인 「철강·비철·광산」 등 12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서비스』는 4개월 연속 개선되어 6년 6개월 만에 판단 분기점인 50을 웃돌았다. 「리스·임대」 「유지보수·경비·검사」 「전문서비스」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그 밖에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대한 인력거건 호조세도 눈에 띄었다.
-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츄고쿠』 『시코쿠』 『큐슈』 등 6개 지역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전체 10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츄고쿠』는 10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개선폭을 기록했다. 60년 만에 시행된 이즈모타이 신사 천궁과 관련된 관광객 증가와 호조세인 자동차 판매가 개선에 기여했다.



### < 향후 전망 : 상승세 지속 >

2014년 4월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설비투자자와 임금인상에 대한 법인세 감세와 관련된 각종 정책, 각 기업의 대응이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전략의 핵심이 될 법인실효세를 인하여 기업의 약 50%가 인하분을 인적투자나 자본투자 등 투자에 적극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과세 실효세율에 관한 기업의식조사」(2013년 9월 조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비제조업을 포함한 설비투자 증가와 임금인상이 기대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일본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인프라 재정비, 소프트웨어 투자, 엔저 정책에 따른 수출과 일본 국내외로의 관광객 증가, 도쿄올림픽개최 결정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마인드 개선이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재건 노력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금리의 상승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호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소비세율 인상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내외수 모두 견조하여 일본 국내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DI	2012년10월	11월	12월	2013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1.3	▲0.2	0.4	2.3	1.8	1.5	1.1	0.6
경기DI	2013년7월	8월	9월	10월	경기예측DI	1ヵ月後	3ヵ月後	6ヵ月後	1年後
	전월대비	1.1	1.0	1.5	0.7	2013년10월대비	0.6	1.2	0.2

\*1: 백색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 51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

- 『금융』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서비스』 가 4개월 연속, 『농·임·수산』 이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한편 『부동산』 『소매』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산업·개인용 모두 호조를 보인 「태양광발전」(49.2, 동 1.8 포인트 증가. 2010년 1월 집계 시작)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 『건설』(54.8)… 전월대비 1.0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연료와 재료, 인건비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신에너지 사업 확대에 의한 설비공사 증가 외에 재해복구공사와 지진복구, 인프라정비로 인한 토목공사, 주택 신축·리모델링 관련, 설비투자 및 기기 재설치, 도교올림픽 관련, 소비세 증세 이전에 발생하는 막바지 수요 등 공공, 민간공사 모두 호조를 보였다.
- 『제조』(44.9)… 동 1.0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건설』과 더불어 최대 개선폭을 기록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증가, 이벤트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거래 문의가 증가한 사무용 가구 등을 중심으로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53.1, 동 3.2 포인트 증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이외에 화력발전설비와 호조를 보인 자동차 생산, 지자체가 주도하는 리모델링 보조 등이 호재로 작용한 「철강·비철·광업」(48.2, 동 2.0 포인트 증가) 등 12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도매』(44.3)… 동 0.8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신축주택과 리모델링, 공공 공사의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53.4, 동 3.1 포인트 증가)와 철스크랩의 고가격대 시장 형성이 이어져 「수요자인 용해 제조회사의 생산량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카나가와현)며 「재생자원도매」(52.1, 동 2.7 포인트 증가)가 50을 초과했다. 또한 주택수요 확대에 태양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47.8, 동 2.9 포인트 증가) 등 9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서비스』(50.1)… 동 0.8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2007년 4월(50.3) 이후 6년 6개월 만에 50을 웃돌았다. 자동차와 지진복구 건설로 인력 수요가 증가한 「인재파견·소개」(57.2, 동 1.5 포인트 증가), 인프라 정비공사와 재해복구공사 등으로 건설장비 대여가 호조를 보인 「리스·임대」(57.0, 3.5 포인트 증가), 자동차 관련 등을 중심으로 공업용 가스 판매가 호조를 띤 「전기·가스·수도·열공급」(48.6, 동 2.8 포인트 증가), 방재·감재 등 토목건축서비스 및 투자자 대상 경영컨설팅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55.3, 동 1.8 포인트 증가), 설비투자목적 향상의 영향을 받은 정비 사업 「유지보수·경비·검사」(47.6, 동 1.9 포인트 증가) 등 15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개선되었고 5개 업종이 50대에 달했으며 3개 업종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12년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사상 최고치	
농·임·수산	33.3	33.7	34.9	36.0	36.8	35.7	35.4	39.7	39.5	41.0	37.8	40.1	40.1	0.0		
금융	35.7	36.1	36.2	41.3	42.4	41.9	44.7	44.4	44.0	44.6	45.0	45.6	45.6	0.0		
건설	38.6	39.0	38.7	41.9	43.8	45.3	46.4	47.6	47.5	49.4	50.7	53.8	53.8	0.0	☆	
부동산	36.7	35.7	37.0	40.9	45.7	46.8	48.8	49.2	47.7	49.3	48.4	49.9	49.9	0.0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3.4	32.7	33.4	34.5	35.6	36.8	38.7	38.1	38.7	39.3	39.0	40.4	40.4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3.7	33.1	35.6	36.9	37.3	38.1	39.9	37.8	37.8	40.2	39.0	40.3	40.3	0.0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6.4	37.0	38.2	38.9	40.3	42.7	43.4	45.3	46.5	47.4	49.6	49.9	49.9	0.0	☆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0.2	30.8	31.1	33.3	33.0	36.0	37.0	38.2	34.9	36.0	37.3	38.6	38.6	0.0	
	화학·연쇄	29.1	29.2	28.3	29.6	31.4	32.8	32.8	33.1	31.9	32.1	31.7	33.8	33.8	0.0	
	화학제품	35.0	33.3	34.1	36.4	38.0	39.9	41.0	42.6	42.1	42.4	43.9	45.0	45.0	0.0	
	철강·비철금속·광업	32.1	31.9	32.6	35.5	37.6	38.5	39.7	40.0	39.8	42.3	44.1	46.2	46.2	0.0	
	기계제조	34.0	33.4	32.7	36.3	39.2	39.8	40.0	41.0	40.8	42.8	44.0	46.0	46.0	0.0	
	전기기계제조	32.6	31.8	32.8	35.8	38.2	38.4	40.1	41.9	40.2	42.3	43.3	43.7	43.7	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	33.3	32.8	32.6	34.2	41.2	45.6	47.0	46.5	48.0	49.9	51.4	51.4	51.4	0.0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3.5	32.5	32.4	33.6	36.5	36.7	39.6	39.3	38.7	39.3	40.8	42.9	42.9	0.0	
	기타 제조	29.2	30.8	31.0	31.3	34.8	35.4	35.6	33.3	33.7	35.9	35.1	36.7	36.7	0.0	
	전체	33.1	32.6	33.1	35.3	37.4	38.6	39.7	40.3	40.0	41.4	42.5	43.7	43.9	0.0	
	도매	식품료품도매	32.4	33.5	33.9	34.6	35.3	37.1	38.0	39.4	38.6	39.7	39.7	41.0	41.0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2.0	32.4	34.3	34.7	34.6	34.5	37.5	36.4	36.3	36.6	36.5	37.8	37.8	0.0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8.3	39.3	39.9	42.2	43.5	44.5	46.3	46.1	46.8	47.7	49.2	50.3	50.3	0.0	☆
종이류·문구·서적도매		28.0	30.2	31.7	31.8	32.3	34.3	36.3	36.5	35.3	35.2	34.9	37.2	37.2	0.0	
화학제품도매		35.6	35.1	34.6	35.9	36.1	38.5	39.7	41.0	41.0	41.9	43.2	43.2	0.0		
재생자원도매		22.4	30.1	32.1	41.9	48.8	50.6	50.6	46.6	43.1	46.5	44.4	49.4	49.4	0.0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2.6	31.6	34.0	37.3	38.2	40.2	38.7	39.9	39.0	41.4	43.4	44.9	44.9	0.0	
기계·기구도매		34.6	33.7	34.1	36.8	38.8	41.0	42.1	41.9	40.4	42.3	43.4	44.4	44.4	0.0	
기타 도매		32.8	32.8	32.2	34.0	35.3	37.1	38.1	39.3	38.8	38.9	39.4	40.7	40.7	0.0	
전체		33.9	33.9	34.5	36.5	37.7	39.5	40.5	40.9	40.1	41.4	42.2	43.5	43.5	0.0	
소매	식품료품소매	33.1	34.7	30.6	32.9	38.8	40.5	40.5	41.0	38.2	40.0	39.9	39.1	39.1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2.9	35.5	32.9	34.6	34.8	41.4	40.7	38.6	39.2	38.6	34.5	39.9	39.9	0.0	
	의약품·임용합약품소매	42.3	44.4	47.7	49.4	45.7	44.9	44.7	50.7	44.0	46.7	45.8	46.7	46.7	0.0	
	가구류소매	32.4	34.7	38.9	37.5	44.4	46.2	50.0	50.0	48.8	57.4	51.7	51.5	51.5	0.0	
	가전·정보기구소매	33.8	33.3	34.1	39.5	38.7	41.7	44.1	42.1	47.5	44.1	46.1	49.2	49.2	0.0	
	자동차·동 부품소매	36.9	31.5	32.1	41.2	42.9	49.4	43.4	47.2	43.8	45.0	47.8	47.7	47.7	0.0	
	전산상품소매	32.4	32.7	33.0	32.7	35.1	37.0	36.9	37.2	37.0	37.0	37.4	37.6	37.6	0.0	
	각종상품소매	35.8	35.3	35.5	38.4	40.5	42.8	45.5	46.9	46.2	45.7	45.4	46.5	46.5	0.0	
	기타 소매	33.3	33.3	36.7	31.0	39.7	33.3	40.5	35.7	38.9	37.5	33.3	41.7	41.7	0.0	
	전체	34.2	34.2	34.0	36.3	38.4	41.2	41.1	41.9	40.9	41.1	41.1	42.4	42.4	0.0	
운수·창고	36.7	35.3	36.9	38.0	39.5	40.6	41.5	42.6	41.7	42.9	43.7	46.4	46.4	0.0		
서비스	음식점	36.0	32.4	35.4	35.7	47.8	43.5	43.8	48.0	47.5	45.2	45.6	44.3	44.3	0.0	
	전기통신	45.2	48.7	48.7	53.8	53.0	55.0	56.4	55.0	54.5	51.7	55.6	51.7	51.7	0.0	
	전기·가스·수도·열공급	37.0	42.6	37.5	43.8	45.8	40.5	48.1	48.1	51.7	48.1	48.1	45.8	45.8	0.0	
	리스·임대	43.3	43.7	45.2	45.3	48.4	49.9	49.6	50.7	50.7	51.2	51.6	53.5	53.5	0.0	☆
	료관·호텔	38.1	40.0	37.2	38.4	40.1	45.8	48.2	49.1	48.3	51.4	50.8	50.9	50.9	0.0	
	오락서비스	37.4	36.2	36.7	38.5	38.5	40.6	41.0	38.5	40.5	36.7	38.6	39.5	39.5	0.0	
	방송	38.2	40.6	38.5	41.7	37.8	43.8	43.5	49.0	44.0	45.1	45.4	49.1	49.1	0.0	
	벤치마크·경비·검사	37.7	38.4	37.6	40.7	44.0	43.3	43.3	44.8	43.7	43.5	45.0	45.7	45.7	0.0	
	광고관련	35.1	34.7	34.5	35.4	38.9	40.8	42.5	42.4	42.6	42.3	42.5	41.9	41.9	0.0	
	정보서비스	42.2	42.8	42.2	45.2	47.3	47.7	49.5	49.3	47.3	49.4	50.6	51.3	51.3	0.0	
	인재파견·소개	46.6	42.8	44.9	44.7	48.7	50.3	50.3	50.6	52.2	52.6	54.5	55.7	55.7	0.0	
	전문서비스	40.5	40.4	41.1	44.3	46.9	47.3	48.7	50.8	47.7	50.4	52.8	53.5	53.5	0.0	☆
	의료·복지·보건위생	41.8	41.1	40.8	45.3	45.7	48.0	48.0	48.8	47.3	45.7	46.9	45.0	45.0	0.0	
	교육서비스	42.3	40.1	38.3	46.8	46.8	45.3	48.0	47.0	46.7	46.4	47.1	42.0	42.0	0.0	
	기타 서비스	41.1	40.7	39.5	42.2	42.1	44.7	44.7	46.2	46.2	47.0	47.9	49.6	49.6	0.0	
전체	40.6	40.5	40.5	43.0	45.0	46.2	47.3	47.9	47.2	47.6	48.8	49.3	49.3	0.0		
기타	37.4	36.0	36.2	36.7	33.8	35.7	42.3	41.5	41.4	38.9	40.1	42.8	42.8	0.0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7.5	7.9	7.4	7.7	8.9	11.1	13.4	9.5	8.2	8.4	12.9	13.7	13.7	0.0		
중국진출	35.7	35.0	35.5	37.5	39.2	40.3	42.3	43.5	42.8	44.1	45.3	46.4	46.4	0.0	☆	
태양광발전	35.5	33.6	34.2	38.0	41.0	40.5	42.4	44.8	45.2	46.6	46.9	47.4	47.4	0.0	☆	

※백색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사상최고치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 수준 갱신을 의미함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

## 규모별 : 「대기업」 과 「소규모기업」 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

· 「대기업」 (50.0, 전월대비 0.4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 (45.9, 동 0.9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 (45.8, 동 0.7 포인트 증가) 모두 4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대기업」 과 「소규모기업」 은 2 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중소기업」 은 2006 년 8 월(46.0) 이후 7 년 2 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은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50 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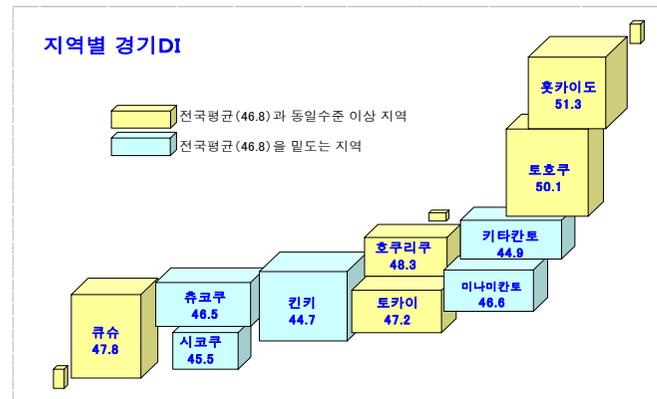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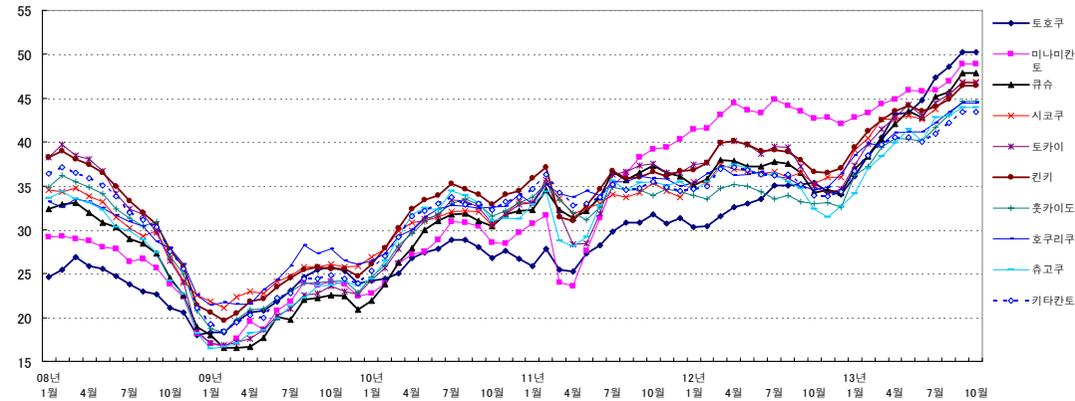
	12년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사상 최고치
대기업	38.2	38.4	38.7	41.0	42.9	44.2	45.3	46.4	45.9	47.0	48.2	49.6	50.0	0.4	☆
중소기업	34.6	34.4	34.7	37.1	38.9	40.4	41.5	42.0	41.4	42.6	43.5	45.0	45.9	0.9	
(그 중 소규모기업)	34.0	33.6	33.9	36.9	38.9	40.1	41.2	41.6	41.1	42.2	43.1	45.1	45.8	0.7	☆
격차(대기업-중소기업)	3.6	4.0	4.0	3.9	4.0	3.8	3.8	4.4	4.5	4.4	4.7	4.6	4.1		

※백색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사상최고치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 수준 갱신을 의미함

## 지역별 : 4개월 연속 10개 지역이 개선, 6개 지역에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

- 「**홋카이도**」 (51.3)·· 전월대비 1.1 포인트 증가. 10개월 연속 개선되었고 4개월 연속 10개 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공공사업과 막바지 수요가 이어진 「건설」 (62.2, 동 3.9 포인트 증가)은 처음으로 60을 넘어섰으며, 1년 전(35.2)과 비교했을 때 27.0 포인트 증가하는 등 업계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건설 관련 손해보험이 호조를 보인 「금융」 (57.1, 동 7.1 포인트 증가) 등 10개 업계 중 4개 업계가 50 이상을 기록했다.
- 「**토호쿠**」 (50.1)·· 동 1.1 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처음으로 50대에 달했다. 8월부터 신고속버스 제도로 진행된 업계 통폐합으로 인한 오버플레이어 해소와 지원복구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한편, 차량·인력난에 빠진 「운수·창고」 (45.5, 동 0.9 포인트 증가, 6개월 전 대비 10.1 포인트 증가)가 대폭적으로 개선된 것 외에 소비세를 인상 이전에 발생하는 막바지 수요와 이재민의 주택구입 증가로 인한 「부동산」 (50.0, 동 3.8 포인트 증가) 등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츄고쿠**」 (46.5)·· 동 1.8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10개 지역 중 최대 개선폭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즈모타이 신사의 천궁(遷宮)과 관련된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로 여객운송이 견조했던 「운수·창고」 (50.0, 동 3.2 포인트 증가), 자동차 판매의 호조로 「철강·비철·광업」 등 생산·도매에도 파급효과를 미친 「제조」 (46.3, 동 1.6 포인트 증가) 및 「도매」 (43.6, 동 1.2 포인트 증가)도 개선되었다. 또한 막바지 수요로 건설 컨설턴트 업계까지 호조세가 확대된 「건설」 (52.3, 동 5.2 포인트 증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능노동자의 인력난이 계속되어 외주업자가 부족했다」 (히로시마현) 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 월별 추이)



	12년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사상 최고치
홋카이도	35.3	34.3	34.0	36.1	38.4	40.5	43.2	43.3	44.8	47.4	48.6	50.2	50.2	0.0	☆
토호쿠	42.7	42.8	42.1	42.8	43.3	44.3	44.9	45.9	45.8	45.9	46.9	49.0	49.0	0.0	☆
기타칸토	32.4	31.4	32.7	34.1	37.1	38.3	39.9	41.4	40.1	42.8	43.0	44.0	44.0	0.0	
미나미칸토	36.6	36.5	37.1	39.4	41.3	42.5	43.5	44.2	43.5	44.1	44.8	46.4	46.4	0.0	
호쿠리쿠	34.2	34.6	34.2	36.9	38.4	40.3	42.0	43.5	42.8	45.2	45.7	47.9	47.9	0.0	
토카이	34.9	34.2	34.6	37.4	39.8	41.5	42.8	44.2	43.0	44.4	45.4	46.7	46.7	0.0	
칸키	33.9	33.8	34.3	36.7	38.5	39.7	40.6	40.5	40.0	40.9	42.2	43.4	43.4	0.0	
츄고쿠	33.0	33.1	32.6	36.2	37.2	39.4	40.4	40.4	40.2	41.7	43.1	44.7	44.7	0.0	
시코쿠	34.6	34.8	36.4	38.4	39.8	39.7	41.0	41.2	41.2	42.2	43.4	44.5	44.5	0.0	
규슈	35.2	36.0	36.0	39.0	40.5	42.6	42.6	43.0	42.5	43.7	45.4	46.8	46.8	0.0	☆
격차	10.3	11.4	9.5	8.7	6.2	6.0	5.0	5.5	5.8	6.5	6.4	6.8	6.8		

※백색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사상최고치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 수준 갱신을 의미함